

고시가 연구의 시각과 전망*

정병현**

<차 례>

1. 고시의 보편성과 특수성
2. 작가에 대한 연구의 심화
3. 작품의 창작과 세계의 관련성
4. 작품의 구조에 대한 논의
5. 자료의 발굴과 해석
6. 고시가 연구의 반성과 전망

1. 고시의 보편성과 특수성

고시는 고전과 시가, 문학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문학이라는 점에서, 고시는 문학이라는 보편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고시가만이 갖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축적된 고시 자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보편성과 특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학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기준과 정신적 지향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고시가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연구를 통하여 얼마나 문학의 보편성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일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이다.¹⁾

* 이 연구는 2005년 8월 20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서 열린 제 18회 한국고시가문학회 전국학술발표회에서 '고시가 연구의 관습과 문화론적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원고를 보완 정리한 것이다. 당시 토론을 통하여 연구를 수정, 보완하게 해주신 박준규, 류연석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문학은 예술의 한 부분이면서 동시에 언어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과 구별된다. 언어를 도구로 한다는 점에서 문학은 대상의 직접적 형상화가 아니라는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플라톤의 '시인 추방론'은 이를 현상의 왜곡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대상은 부정과 긍정의 양면을 지니고 있다. 언어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학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예술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결정적 이유로 이 언어의 사용을 들고 있기 때문이다. 언어가 있어 사실은 모든 문화의 전승은 가능해졌다. 인간의 문화를 말의 시대에서 글의 시대로, 그리고 다시 디지털의 시대로 변화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바로 언어를 기본으로 하는 의사소통이 시대 구분의 기준으로 사용됨을 의미한다. 문학은 바로 문화 전달의 핵심인 언어를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발생 초기부터 존재하는 화석문화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이 화석문화로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언어로 소통되는 예술이라는 점에 한정되지 않는다. 수많은 문화가 나타났다가 소멸한다. 모든 문화 현상도 마찬가지로 형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학이 그 형태를 바꾸어가면서 존속되고 있는 것은 문학이 그럴 만한 소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 이유가 바로 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문학이 인류의 발전에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살아남는 문화 현상이란 바로 이러한 긍정성, 경쟁성에

** 숙명여자대학교

- 1) 작가나 시대, 또는 선택된 장르는 그 문학의 경향(fashion)을 결정지을 뿐, 그 문학의 가치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 상식은 개별 작품의 연구에 있어 흔히 망각되기 마련이다. 뛰어난 작가, 또는 시대정신에 압도되어 그 문학의 가치가 저절로 규정되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웰렉과 위렌은 문학의 본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 바 있고, 많은 문학 연구자들이 이론적으로는 이에 수긍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구체적인 연구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역시 비본질적 연구가 주류라고 할 수 있다.

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긍정성과 경쟁성의 기반에는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생산성이 놓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익이 되는 것과 손해가 나는 것 중, 선택은 당연히 생산성과 직결되는 것의 몫이었다. 이러한 이익 추구하고 생산성을 문화 전승의 주축으로 삼는 태도를 우리는 실사구시의 정신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문화 현상이 반드시 이러한 실용과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손해가 날 줄 뻔히 알면서도 선택을 하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치인 것이다. 그것을 인의나 도덕으로 말할 수 있는데, 이 이익 추구 문화와 의리 추구 문화는 상호 보완, 또는 충돌하면서 인류의 문화를 형성해 왔다. 문학이란 아무래도 그렇게 썩 이익과 관련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문학을 담당하는 집단이 그렇게 부자가 되거나 권력을 가지고 뽐뽐거리는 일도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조의 선비들이 문인을 겸하였지만, 그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권력을 획득하였던 것은 그들의 문학적 소양 때문이 아니라 백성을 제도한다는 유교적 정치 문화에 대한 강한 경사 때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문학이 인류의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이는 한 마디로 평등을 향한 역사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가 그래도 발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 혼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종교가 그러하고, 또 국가의 변화 또한 그렇게 더불어 잘 사는 세계를 꿈꾸며 변화되어 왔다. 이런 점에서 자신들만이 선택된 인간이고 집단으로 치부하는 문화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돌보면서 더불어 나은 상태로 이행해 나가는 문화야말로 인류의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 바로 그러한 변화를 구체적인 세계를 통하여 보여준 문화이다. 결코 평등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스토크(H. B. Stowe)는 톰의 고귀한 인간성을 구체적으로 그림으로써, 노예제도의 철폐라는 시대정신을 이끌었다. 그것이 문학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문학이

즐거 예외적 상황과 소외된 존재를 주인공으로 드러내는 것도 문학의 존재 이유가 바로 더불어 사는 세계의 구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영웅으로 번역되는 Hero여야만 작품의 주인공일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다. 그러나 문학은 그 장벽을 쉽사리 뛰어넘었다. 신화의 인물과 기사들이 판치던 로망스에서 하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파멜라(Pamela)가 등장하자, 이를 근대소설의 시작이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구비문학의 영역에서는 일찍부터 필부필부가 등장하고, 힘 없는 어린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기성의 권위와 대결하고 있었다. 우리는 문자 중심의 문학사를 전개했던 서구의 근대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정작 우리의 문학 속에 담긴 근대성을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문학이 그런 것이라면, 우리의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거기에 맞추어야 한다. 미술은 미술을 보는 안목으로 보아야 하고, 음악은 음악을 듣는 척도로 그 이해의 영역에 들어가야 한다. 시를 시로 보고, 소설을 소설로 보는 문화가 이미 확립되어 있어, 우리 멋대로 시를 소설의 안목으로 보거나 영화를 시의 안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문화의 관례 [Convention]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화를 파괴하는 야만으로 매도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을 문학으로 보는 관점의 확립이 문학 연구의 기초가 될 것이다. 대상의 존재에 대한 성찰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그 본질에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학의 연구는 항상 그런 문학 개념적 지식의 확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필연성을 지닌다.

고시가는 고전문학의 여러 갈래 중 시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명칭이다. 여기에서 '시가'를 사용하게 된 것은 우리의 고시가가 음악과의 긴밀한 관계에서 형성 향유되었다는 지역적 특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음악과의 관련 속에서 시가 향유된 것은 문학사의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서양문학과의 접촉이 있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 현상이 지속된 것은 우리만의 독특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음악과 관련없이 향유된 시가 장르는 한시 정도가 있을 뿐이다. 한시의 향유도 문자만의 독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낭송을 통한 연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우

리의 시가를 바라봄에 있어 음악과의 연관이 반드시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시가' 명칭의 사용은 음악과의 단절이 이루어진 근대시 이후의 것과 구별하는 의미에서 적합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²⁾ 따라서 서양문학과의 접촉 이전에 이루어진 시가 작품을 총괄하여 '고시가'로 규정하고, 그 연구의 현황과 지향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고시가문학회는 고시가라는 단일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학회로서는 맨 처음인 1990년 2월 창립되었고, 현재까지 18권의 논문집을 통하여 고시가 분야의 연구 기반을 충실하게 다져왔다. 이 기간 동안 발표된 논문은 모두 223편을 상회하고 있어 학회의 연구사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논의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³⁾ 여기에 발표된 논문은 크게 ① 작가에 대한 연구의 심화, ② 작품 창작과 세계의 관련성, ③ 작품의 구조에 대한 논의, ④ 자료의 발굴과 해석의 네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연구의 정리를 통하여 고시가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고시가 연구의 전망을 설정하고자 한다.

2) 고전문학의 갈래를 관습적으로 고전시가, 고전산문, 한문학, 구비문학으로 구분하는 것은 초기 고전문학 연구자의 성격에 따른 구분일 뿐, 논리성과 실효성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민요는 구비문학이면서 동시에 고전시가이고, 한시는 고전시가이면서 또 동시에 한문학이다. 마찬가지로 금오신화는 고전산문과 한문학에 소속된다. 그런 점에서 고전문학을 고전시가와 고전산문으로 대별하고, 이를 다시 하위 구분하는 것이 논리의 체계에 부합한다. 근대 이전의 문학에 대하여 모든 문학 작품이 엄밀한 의미에서의 '고전'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고전'의 사용을 주저하는 견해도 있지만, '고전'이 반드시 사전적 의미만으로 한정되어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전의 서양 역어인 'Classic'도 반드시 사전적 의미의 고전만으로 한정되어 사용되지 않는다.

3) 한국고시가문학회에 이어 한국시가학회가 1996년 6월 창립되어 고시가 연구 분야의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되었다. 한국시가학회는 본래 현대시와의 연계성까지도 고려하여 설립되었지만, 그 회원은 고시가를 전공하는 연구자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국고시가학회와의 차별성은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고전문학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고전문학회는 1970년 2월, 한국한문학회는 1975년 4월, 한국고소설학회는 1988년 2월, 한국구비문학회는 1993년 8월 창립되었다.

2. 작가에 대한 연구의 심화

문학은 세계를 기반으로 하여 또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창조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문학이 현실의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문학이란 세계와 세계를 반영하는 작가와, 그 구체적 실상인 작품, 그리고 이를 또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향유층으로 구성된 네트워크이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은 작가 중심적 시각 위에서 형성되었다. 이것은 창조자 중심의 종교적 관행이 이미 확립되었고, 인간의 문화 창조는 이러한 제의를 모방하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관행에서의 일탈이 종교재판이나 마녀사냥과 같은 엄청난 시련을 불러왔다는 점, 따라서 이루어진 현상으로서의 결과는 그것을 만든 주체의 의지와 관련지어 해석해야 한다는 관습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연구자는 작가의 연보 작성과 사생활 복원에 온 힘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작가에 대한 자료의 발굴이 엄청난 연구사적 의미를 갖게 되었고, 연구자는 작품의 비밀을 작가의 행적이나 발언을 통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이것이 문학 연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도 가세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반성 위에서 작가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경계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신비평은 표현론이나 모방론을 비판하면서 작품 자체의 구조를 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지나치게 강조되어 작품의 해체와 분석으로 채워지는 문학 연구는 그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신비평에서 강조하는 '의도의 오류'는 "작가의 의도에 대한 심리학적 고려의 위험성을 경계하려는 데 있었을 따름이지, 시인은 전혀 무시하고 시만 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말을 그릇 이해하여 시인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근거로 삼는 것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 4)

작품을 창작하는 주체로서의 작가는 어떤 의미에서건 문학 연구의 중심에 놓여 있다. 작가가 문학 연구의 중심에서 있는 까닭이 바로 ‘작품을 창작하였다는 사실’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작가에 대한 깊은 관심은 문학 연구의 초기부터 존재했고, 또 그 비중은 달라지겠지만 미래에도 또한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고시가학회의 논문집인 『고시가연구』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바로 작가 연구이다. 물론 작가 연구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가 연구를 바탕으로 작품의 심층적 의미를 천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순열은 작가의 연구를 폭넓게 진행함으로써 작품의 논의를 보다 풍요롭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 분야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몇 겹의 상징으로 이루어진 작품에 접근하는 ‘실타래’⁵⁾로서의 역할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면모일 것이기 때문이다. 권순열은 송천 양응정(5집), 학포 양팽손(8집), 고죽 최경창(9집), 송고 권영옥(15집)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작품 논의를 심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특히 풍부한 자료의 제시를 통하여 고죽 최경창의 생애를 재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홍랑과의 사랑 여정을 파악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문학 연구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고전문학이 당면하고 있는 실용성의 빈곤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제시되는 콘텐츠의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근래 영상물로 제작되어 고전의 지평을 넓혀준 <대장금>이나 <왕의 남자>는 바로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 있었다. 『고죽 최경창 연구』(9집)의 성과를 『최경창과 홍랑 연구』(16집)로 확대한 것도 이러한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 영역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⁶⁾

4) 김인환, 『문학교육론』(평민사, 1979), 66쪽.

5) 대상의 실체에 접근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단서’의 속의미인 실타래로 형상화되어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이에 대하여는 정병현, 『한국고전문학의 교육적 성찰』(숙명여자대학교출판국, 2003), 86~91쪽을 참고할 것.

6) 권순열은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 『고죽집』을 번역하여 일반인들도 최경창과 홍랑의 사랑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결론 부분의 다음 기사는 문학이 상상력의 소산이라

따라서 작가에 대한 깊이 있는 천착은 작품 속에 드러난 체험과 작품을 통하여 얻는 독자의 체험을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고 있다. 이 외에도 생애와 교유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가 연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김신중, 「사암의 생애와 사암시의 전고에 대하여」(1집)
- 박준규, 「눌재 박상론 -생애 및 그 위인을 중심으로-」(1집)
- 김주한, 「송강의 생애」(2·3합집)
- 박준규, 「송재 나세찬의 교유인물과 교유시」(5집)
- 류연석, 「양응정의 서찰과 연행록에 대한 연구」(6집)
- 강전섭, 「창랑곡의 작자 모색」(7집)
- 김성기, 「공후인의 작가에 대한 연구」(13집)
- 위홍환, 「존재 위백규의 학풍과 교유관계」(15집)
- 김준욱, 「꿀은 김류의 문학적 기반과 시의 양상」(16집)
- 김진욱, 「망명 후 김택영의 세계관 연구」(16집)
- 박영관, 「옥봉 백광훈 시에 나타난 교유관계 연구」(16집)
- 김대현, 「소파와 설주의 생애와 시문학 연구」(17집)
- 이월영, 「석정 이정직의 문필생활과 시 특성 고찰」(17집)

3. 작품의 창작과 세계의 관련성

는 점, 따라서 문학 연구는 그러한 비밀을 간파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 후 한양으로 돌아온 고죽이 병이 깊다는 소식을 접한 홍량은 즉일로 한양으로 철주야를 달려왔다. 이것은 엄청난 위법이었다. 하나는 관기의 신분으로 지역 경계를 이탈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양계의 금령을 어긴 것이다. … 고죽 사후에 시묘를 하고 전란 속에 고죽의 유고를 지킨 모습은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해준 입에 대한 헌신의 극치였다. 이처럼 홍량에게 있어서 고죽과의 이별이란 만남의 또 다른 모습일 뿐이었다. 홍량은 그야말로 이별과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한 진정한 선녀라고 할 수 있다.” (『고시가연구』 16, 22쪽.).

작품이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진실이다. 작품 속의 사건이나 인물이 허구적인 것이라 하여도 현실과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이루어진다는 점, 따라서 작품 속의 시대나 사회에 대한 통찰은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작가가 작품을 구상하거나 창작하는 순간 하나하나 모두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련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에서 작품 연구에 있어 세계에 대한 관심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 작가가 거주하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작가의 정체성을 결정해주는 이념의 형성 등은 필연적으로 작품 속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시가연구』에서 돋보이는 현상은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되는 공간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작품 창작의 지역성과 관련되는 것인데, 특히 호남지역은 고시가 창작의 태반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점에서 지역적 특색을 고찰하는 것은 작품의 성격을 파악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호남에 거주하는 연구자로서는 그러한 산실 속에 거주하는 자부심과 체득한 문학적 소양을 누구보다도 잘 발휘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한 점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집중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한 작가의 연구에서 해당되는 작가가 대체로 호남 지역과 연관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배경에 대한 연구는 박준규의 「광주의 박산과 송천 양응정」에서 그 성과가 잘 드러나고 있다. 이 논문은 송천 양응정의 문학적 배경이 되는 광주의 박산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천착함으로써, 작품의 해석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있다. 박산을 품고 있는 어등산이 ‘면양정 30경’의 하나로 들어 있어 시인들은 〈면양정 삼십영〉 속에 ‘어등모우(魚登暮雨)’를 넣었고, 다투어 시를 지었다. 다음의 작품은 임억령의 것이다.

급히 퍼붓는 소낙비 어등산 골짜기에 내리니,
시냇물 불어 돌 모서리까지 잠기네.

검불에 덮인 물 속만이 진실로 즐길 만하니,
모름지기 높은 곳 함부로 오르지 말라.

이 작품과 만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작가가 누구인지 몰라도 이 작품이 주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또 여기에서 드러나 있는 작품 배경으로서의 '어등산'은, 문학이 상징이라는 점에서 작가의 시상을 열어주는 제유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는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공간에 대하여 무한정으로 알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작품의 이해와 배경을 긴밀하게 연관 짓는 태도는 작품의 독자성이나 자족성을 해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작가가 확인되지 않는 구비문학은 그런 점에서 오히려 시공간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어등산의 함의와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작가의 상황을 전제하면, 작품은 갑자기 역동적인 울림으로 전환한다. 이 작품은 반드시 어등산 골짜기에 퍼붓는 소낙비라야 할 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등(魚登)'이 곧바로 출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시인은 '검불에 덮인 물'을 택하고, '높은 곳'을 배제하였다. 이런 이념적 확인을 통하여 시인은 현실을 벗어나 시적 소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양응정의 문학을 이해함에 있어 박산의 전원생활은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관문이다. 많은 문인들과의 교류가 이곳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는 박산마을을 '어등산과 함께 잘 보존하여 길이 기려야 할 문화유적지'로 가꾸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⁷⁾

이 유형에 속하는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김신중, 「송강가사의 시공상 대비적 양상 (2·3합집)

김신중, 「소상팔경가의 관습시적 성격」(5집)

류연석, 「순천유림의 시사활동에 관한 연구」(8집)

김성기, 「서은 전신민의 독수정과 호남의 충의 (9집)

7) 『고시가연구』 6(한국고시가문학회, 1999), 149~171쪽.

한예원, 「16세기 사회기에 있어서 호남 학문의 형성과 전개 양상」(14집)

김명준, 「강호사시가의 창작시기와 세계상」(15집)

김활남, 「연정가사의 형성배경에 대하여」(15집)

양동식, 「전남지역과 김병연문학의 관계」(16집)

김창원, 「17-8세기 서울 및 근기 일대 전가시조 형성의 사회사」(17집)

박중렬, 「지방문학의 개념 범주와 연구 방향」(17집)

4. 작품의 구조에 대한 논의

문학 활동을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한 중심에 놓이는 것이 작품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세계는 작품과 관련을 맺으면서 문학적 세계로 변모한다. 그리고 한 인간은 작품을 창작하였을 때 비로소 작가로서의 칭호를 얻게 된다. 그리고 다른 어떤 문화 현상이 아니라 오로지 작품을 대하는 향유자라야 독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작품은 문학을 이끌어가는 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문학 연구의 핵심도 당연히 작품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문학 연구가 작품에 대하여 합당한 대접을 하였는가에 대하여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작품의 해석 앞에 작가의 말이 놓이거나, 작품의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또 작가의 이념적 성향이나 교유관계가 작품을 해석하는 전제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렇게 된 이유를 우리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작품은 보는 사람에 따라 각기 그 모습을 달리 하여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작품에 대하여 단일한 해석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점이야말로 문학이 다른 문화 현상과 구별되는 중요한 차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의 일이란 자기 보고싶은 대로 보여지는 것이고, 또 같은 대상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문학이 어느 하나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은 세계의 진실한 모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난제의 해결이야말로 문학 연구를 하는 보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품을 둘러싼 세계로부터 해방되어 다양한 모습으로 서 있는 문학의 원리를 찾는 일은 문학 연구자의 영원한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시가연구』에 실린 논문의 상당수는 작품의 구조를 밝히는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김대행의 「상춘곡 : 추상의 의미」는 작품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다.⁸⁾ 연구자는 〈상춘곡〉이 기반하고 있는 특성을 ‘추상성’에서 찾음으로써, 이 작품이 기반하고 있는 시공간적 기반을 벗어나 작품을 해석하고 있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초가삼간’을 던져두고 ‘수간 모옥(數間茅屋)’을 선택하는 것도 이 작품이 추상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 진술과 이미지로 점철되어 있는데도 독자로 하여금 별 장애 없이 그 정경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를 연구자는 ‘우리의 머리 속에 깊이 뿌리내린 관념적 아름다움’에서 찾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논문은 작품의 추상성과 관념성이 독자의 역할과 만났을 때 이루어지는 예술적 완성을 논리적으로 포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구조에 대한 접근으로 이루어진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정운채, 「윤선도의 한시와 시조에 나타난 ‘흥’의 성격 (1집)

서영숙, 「속미인곡과 성산별곡의 대화양상 분석 (2·3합집)

김열규, 「송강의 역사성과 텍스트」(2·3합집)

고순희, 「19세기 장르간 교섭의 한 양상 : 현실비평가사를 중심으로 (5집)

8) 『고시가연구』 5 (한국고시가문학회, 1998), 71~85쪽.

- 조홍욱, 「한림별곡의 형식적 특징」(5집)
 김신중, 「문답체문학의 성격과 성산별곡」(8집)
 최진원, 「면앙정가의 화중시 : 산점투시를 중심으로」(9집)
 고순희, 「상사별곡의 표현미학 연구」(13집)
 류연석, 「속미인곡의 기행문학성 고찰」(16집)

5. 자료의 발굴과 해석

문학 연구는 기본적으로 작품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런 점에서 문학 연구에 있어 자료 발굴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자료의 발굴을 통하여 기존의 문학사적 해석이나 연대 기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자료의 발굴에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여타의 문학 연구는 시일을 두고 서서히 이루어져도 괜찮지만 자료의 발굴만큼은 시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잘못하여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자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학회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 중의 하나는 미지의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시가연구』에서도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연구자에게 공개하고 있는데, 류연석과 양동식이 발표한 「새로 발굴한 김병연의 과체시 검토」는 기존의 김병연에 관한 논의를 심화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시상(時尙)』에 수록된 김병연의 과체시 18편을 소개하였는데, 6편은 이미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추가 발굴된 자료는 모두 12편이다. 새로 발굴된 과체시를 통하여 김병연이 추구하는 문학세계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새로 발굴된 자료의 소개가 이루어진 연구 목록은 다음과 같다.

- 송병상, 「금옥총부 작품 후기의 성격 고찰」(4집)
- 강전섭, 「자탄가의 환독과 감상」(10집)
- 류연석, 「해남윤씨 종가 소장 규방가사 연구」(11집)
- 이권재, 「재봉집 미등재 시문 연구」(14집)
- 김팔남, 「새로 발견된 소악루 이유의 가사 몇 편에 대하여」(18집)

6. 교시가 연구의 반성과 전망

문학이 세계를 모방하거나 반영한다는 사실은 문학이 허구의 산물이라는 전제 위에서만 용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규방가사의 이해는 이를 가능하게 한 제도의 이해가 필수적이지만, 그 제도에 대한 시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수많은 인파가 거리로 물려나왔던 1980년의 봄을 어떤 사람들은 민주화를 위한 대장정으로 보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폭력과 무질서가 난무하는 부정적 상황으로 보아 억압하였다. 그것이 꼭 어느 일방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의 왜곡으로 규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장님과 코끼리>의 우화는 총체적 성찰의 바탕 위에서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교훈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보다 깊은 속 의미는 인간이란 그렇게 한정된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인간에 대한 비극적 인식에 놓여 있다. 우화에 등장하는 장님은 바로 우리 자신의 불구적 모습이기 때문이다.

문학이 독자와의 만남을 통하여 완성된다는 것은 문학 강의의 첫머리에서 강조되는 사항이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문학 향유의 주체로 부상한 독자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독자의 다양한 해석이 체계화라는 학문의 성격과 위배된다는 비판 속에서도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은 바로 문학의 본질이 그러하다는 원론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다양한 작

품의 향유가 문학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다양성을 묶는 새로운 원리의 발견이야말로 더욱 값진 것이기 때문이다. 향유자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문학을 소수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문학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미의 평등 실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권위 있는 해석에 어정쩡하게 따라가던 독자는 자신이 주체가 되어 독립적으로 하나의 사유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래 전에 문학 연구의 틀을 세운 김태준이나 조운제, 그리고 이병기에게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않다. 이는 지금의 고전문학 연구 현실이 그들의 문학을 바라보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국지적으로는 뼈대와 같았던 그들의 입론을 충분한 양으로 살찌웠지만,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망령으로 우리 앞에서 있는 것이다. 물리학의 대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뉴턴은 아인슈타인으로, 그리고 소립자 물리학으로 변하였다. 그러나 과거의 것은 현재의 기반이 아니고, 현재를 이루게 하고 자신은 역사적 사명을 마쳤다. 누구 하나 뉴턴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고전문학은 여전히 그들이 주장했던 민족주의나 리얼리즘, 그리고 작가 중심적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 이유를 우리는 흔히 인문학의 본래적 속성이라 하여 자랑스럽게 말하곤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일은 우리의 연구 속에 녹아있는 이념적 잔재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 될 것이다. 근대적인 의미의 고시가 연구는 민족문학의 확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이는 국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한국어로 된 문학을 연구한다는 것이 가지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고전문학의 연구가 민족문학의 원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는 더욱더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양주동의 고시가 연구가 소창진평의 향가 연구에 촉발되어 이루어졌던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양주동은 연구의 시발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내가 혁명가가 못 되어 총칼을 들고 저들에게 대들지는 못하나마 어려서

부터 학문과 문자에는 약간의 친분이 있고 맘속 깊이 원(願)도 열(熱)도 있는 터이니 그것을 무기로 하여 그 빼앗긴 문화유산을 학문적으로나마 결사적으로 전취·탈환해야 하겠다는 내 댄에 사뭇 비장한 발원과 결의를 했다. 소창(小倉)씨의 저서를 읽은 다음날 나는 우선 장기관을 떼어서 불 때고 …(양주동, 『고가연구』 발문)

이러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비단 양주동에게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선문학에 대한 관심 자체가 이미 민족문학으로서의 바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조운제는 문학을 ‘생활의 표현·합목적적 생명체’로 파악하였는데, 이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그의 ‘국문학 특질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문학의 특질로 ‘은근과 끈기’, ‘애처롭과 가냘픔’, ‘두어라와 노세’를 들었는데, 그것은 주로 시가의 연구 결과에서 추출한 것이었다. 특질을 논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전제하는 것이지만, 사실 완벽한 비교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를 밀고 나갔던 것은 조운제의 ‘열정적인 주관적 태도’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

이병기는 조운제의 ‘실증주의 지양’과 대척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조운제가 경성제국대학을 통하여 정식의 연구 과정을 밟은 것에 비하여 이병기의 국문학 연구는 밤 시간을 이용한 1년 간의 조선어 강습이 교실을 통하여 어문학을 접한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천부의 혜안으로 한국의 문헌학적 수준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감상의 정밀함을 확립하였다. 그는 이러한 문학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시조 부흥운동과 창작에 몰두할 수 있었다. 그의 문학을 바라보는 안목이 ‘한국적인 멋’의 추구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의 문학 연구는 민족주의적인 것에 대단히 경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양주동과 조운제, 그리고 이병기의 학맥은 이후 고전시가 연구자의 주

9) 김병국, 『한국문학 특질론 -서양문학과와의 비교에서-』(『고시가연구』 1, 한국고시가문학회, 1993) 참조.

류를 형성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민족주의적 태도를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각각의 연구는 차별성보다는 공통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작품의 발굴과 작가에 대한 의미 부여는 이들 모두에게서 드러나는 중요한 연구의 경향이었던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하여 민족의 자긍심을 드높일 수 있다고 믿는 점에서 그들은 동일한 사고를 지닌 연구자인 것이다. 그 결과 정철과 윤선도, 그리고 박인로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고, 새로운 자료의 발굴은 그 자체만으로 연구에 값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우리의 고전시가 연구가 한 단계 뛰어올랐음은 물론이다.

문학을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는 작가와 작품, 그리고 세계와 독자이다. 이 요소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면서 하나의 문학 현상을 이루는데, 시대와 지역에 따라 특별히 어떤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작품을 제작하는 주체로서의 작가에 대한 관심은 종교적인 것과 연관되어 가장 먼저 나타나 지금까지도 주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시대의 작품 자체에 대한 관심은 중세의 종교적 세계관에 따라 창조자 중심의 연구인 작가론(또 창작론)에 대단히 경도되었다. 그 결과 종교에서의 창조자에 대한 시각을 그대로 작가에 전용하여 작가 절대주의에 빠지는 오류도 나타났다. 작가의 생애와 담론이 작품 이해의 절대 기준으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는 작가 없는 문학의 연구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오랫동안 구비문학이 문학 연구의 대상에서 소외되었던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작가 하나만으로 작품의 제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은 작가의 범위를 작가가 소속된 시대와 사회로까지 확대시켰다. 작가는 시대와 사회의 그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반영론은 작가론의 확대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문학 연구의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창작의 배경이 되는 시대와 사회가 강조되면서, 그 시대와 사회를 바라보는 안목의 중요성이 문학을 이해하는 중요한 잣대로 등장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작가론의 확대 개념으로 입론된 반영론은 작가가 결코 시대와 사회의 제약에서 벗어

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오히려 작가를 질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그 시대와 사회가 규정되면서 작가의 자유로움과 다양한 개성이 억눌리게 된 것이다. 문학 연구자는 시대와 사회를 규정한 사회학과 역사학의 성과를 받아들임으로써 문학 연구의 과학화를 피하기도 하였다.

문학 연구의 최종 목표는 결국 작품 자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신비평가들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이론으로 확립되었다. 이들에 의하여 작품 자체를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작품론(구조론)이 성립된 것이다. 이만큼 작품자체에 대한 명료한 해석은 이전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문학 연구자의 첫발을 『문학의 이론』에 걸쳐놓을 수밖에 없었다. 문학 연구 논문의 참고문헌에는 반드시 이 책이 선두에 놓였고, 신비평의 종교 속에 빠져들기도 했다.

문학이 결국 독자에 의하여 완성된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그래서 독자를 전제하지 않은 작품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김시습은 자신의 독자를 당대가 아니라, 후대에서 찾았지만, 결코 독자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독자의 수만큼 작품의 해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이론화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주된 흐름으로 인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라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시가연구』 1-18, 한국고시가문학회, 1993-2006.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3.
김인환, 『문학교육론』, 평민사, 1979.
유성호, 「대학의 교양교육으로서의 시교육」, 『문학교육학』 18,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12.

정병현, 『한국고전문학의 교육적 성찰』,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3.
제임스그리블(나병철 역), 『문학교육론』, 문예출판사, 1996.

<투고일 : 2006. 12. 10. 심사일 : 2007. 1. 29. 심사완료일 : 2007. 2.9.>

〈Abstract〉

The Viewpoint of Research to the Classical Korean Poetry and the Future Prospect

Chung, Byung-heon

The Society of Korean Classic Poetry was established as a first academy which specifies only on single category, ancient poetry on 1990 February. It has formed the basis of study of ancient poetry by 18 books of collection of pap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rganize types of papers that were done, and from that tried to establish desirable direction of research. There are four types of papers, which are: 1. Intensifying research on the author, 2. Relation between works and the world, 3. Discussion on the structure of work, and 4. Collecting material and Interpreting.

Research on the writer, which has a long history in the area of literary research, takes up a large quantity. It is useful on that researchers can enrich interpretation of works by research on the writer. Discussion on the environment which surrounds the works is mostly done on the space where the work takes place. Many researches are done on writers and works that are related to the Honam area, and the reason seems to be the easy access to the subject. However, discussion on the structure of works have not been done as much. This can be explained on that researchers have been more interested in research of the world and collecting

materials based on the region. Collecting and presenting new materials are necessary for activation of literary research. Recognizing and preventing loss of hidden materials are just as necessary.

Another lesson from this research was that research of ancient poetry should be done from now that researchers should regret reconsider research on the readers' adopting attitude and interpretation based on radical nationalism.

Key Word : desirable direction of research, research on the author, works and the world, structure of work, Collecting material and Interpreting, the Honam area